
2021년 제1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3. 19. ~ 3. 2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3. 19.	시청률	0.009

【총 평】

경제&이슈는 '주택시장 안정 총력, 공급대책·LH 관련 후속 조치 추진'에 대해 다루었고, '알뜰신잡'은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봄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방송했다. '주택시장 안정 총력, 공급대책·LH 관련 후속 조치 추진'은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공급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거 복지를 동시에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추진 의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이 된 완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완치자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완치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유럽이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PCR 검사로도 찾지 못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0명대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해 비교적 양호이지만 경계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정부 의지, 기존 공급대책 추진 현황, 3월 중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4월 중에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 예정지를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다뤘다.

부동산시장 동향은 매수자 우위시장 상황으로 가격상승 둔화된 상태로 전국 서울아파트 주간 거래량 감소세 지속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2.4 대책의 핵심과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고, 4월 중 발표할 2차 신규 택지 발표 전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의심거래는 모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자. 또, 투기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LH 투기관련 투기 의심자의 구체적 후속 조치 방안에 무게를 실어 다루었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공감을 샀다. 또, 농지법의 개선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따로 덧붙였는데 분야별로 정리가 잘 되어 꽤 설득력이 있었고 마무리에 공직자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해 '예방-적발-처벌-환수' 패키지 대책에 관해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인 점도 임팩트가 있었다.

'알뜰신잡'은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봄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 학기에 걸리기 쉬운 봄철 감염병으로 수족구병, 유행성 이하선염의 대상 나이, 증세와 감염병 확산 시기, 예방 수칙, 그 외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감염병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20.	시청률	0.000

【총 평】

‘문경 시골마을을 바꾼 청년들! 힘들지만 좋은 걸 어떡해’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귀농한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소멸위기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농사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모델로 보여서 관심을 끌었다. 주인공은 문경시 문화재생 사업 운영자 공모에 선정되어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카페를 개업해 정착하게 되었다. 다섯 명의 청년들이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 활기를 되찾아 준 모습이 산뜻하게 비춰졌고,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통통 튀는 안목이 돋보였다. 특히, 폐양조장이나 한옥을 개조해 카페나 빵집, 펜션 등으로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통의 귀농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귀농을 보여줬다.

【구성 및 내용】

경북 문경시 산양면에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나 ‘소멸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주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종가집 한옥으로 대청마루 같은 한옥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며 리모델링해 카페나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 또, 버려진 폐양조장의 시설을 가능한한 살리면서 리모델링해 카페와 베이커리로 이용하고 있는데 손님도 제법 많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생기를 주고 있다. 이제는 문경의 명소로 거듭나 문을 연지 2년만에 자립에 성공했다.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한 주인공은 자신이 더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심에 문경을 선택했고,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시골 정착을 돕는 사업을 통해 가깝게 지내던 대학 동기 다섯명이 ‘리플레이스’라는 팀을 꾸려 지원한 것이 시작이었다.

특히, 청년들은 양조장 자리에 카페를 만들어 양조장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지역민과 공감하며,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했다. 문경시의 산업유산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양조장을 재창조시켜 사진 자료들이 그대로 보관되었고 청년들이 당시를 언급할 때의 사진들이 적절히 준비가 되어 이해를 도왔고,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갔으며 동네를 어떻게 잘 이어가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다. 양조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겸 베이커리라고 소개해 특별한 느낌이었는데, 그 시절 양조장의 모습을 추억할만한 부분들을 잘 살려내어 운치를 더했다. 특히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유도해 볼거리도 제공하고 버려진 공간 살리기에 대한 취지도 강조했다. 카페에서는 여러 메뉴가 있었지만 특별히 지역 생산물인 오미자, 미숫가루 등을 강조해서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취지가 제대로 부각되었다. 베이커리에서는 귀촌한 제빵 담당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지역에서 유명한 막걸리를 활용한 빵을 만드는 과정도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철저하게 지역과 협력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들은 문경의 먹거리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를 판매하는가하면, 지역 예술가가 만든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 세 번째 프로젝트로 셀프 사진관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3 20.	시청률	0.037

【총 평】

‘교동도 낭만 블루스-인천 강화군’는 북한 땅과의 거리가 고작 3km 떨어진 시간이 멈춘 섬 강화군 교동도의 이야기를 담았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교동도 실향민들의 구구절절한 삶과 사연을 생활 속의 소리와 인터뷰 등으로 전달했다.

70년이 넘도록 고향을 그리면서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인상적으로 그렸고, 머리를 자르는 바리깡 소리, 머리감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쌍화차 끓이는 소리 등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교동의 풍경소리를 깊이 있게 표현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모든 물리적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통해 제작의 기획과 의도를 충분히 전달했다. 교동도 실향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의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내용을 이끌어낸 훌륭한 작품이었다.

【구성 및 내용】

이발소에서 면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수업을 깎는 소리와 이발소의 도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들을 잘 담아냈다. 특히, 이발소 주인이 어르신에게 면도를 해드리는 소리를 아주 잘 살려냈는데 누군가의 면도하는 소리, 수염이 깎이는 소리가 새롭게 느껴졌다.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소리를 느린 템포로 잘 살려냈다.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을 다리면서 내는 연기와 소리가 어떤 효과보다 훌륭했다. 소리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교동도의 이미지를 잘 연결해 애절한 감정을 선사했다.

대룡시장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 실향민들이 생계를 위해 고향에 있는 시장을 본떠 만들었다. 작은 규모지만 그 속에 모인 소리는 정겹고 알차게 들려왔다. 대룡시장의 북적거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방앗간과 전통찻집으로 이동해 떡을 뽑고 쌍화차를 끓여내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담아냈다. 시장 특유의 약간 활기찬 분위기로 변화를 주었는데 시끄럽거나 번잡하지 않고 운치를 잘 이어나갔다. 시장에서 호떡을 기름에 굽는 소리를 비롯해, 빵튀기와 껌배기를 만들어 파는 소리는 어떤 ASMR보다 최고였다. 떡방앗간과 전통 찻집에서 떡을 뽑고 차를 끓이는 장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내서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이미지를 풍겨냈다.

이 밖에 미용실을 찾은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와 함께 할머니 손님의 노래 한 자락을 구성지게 살렸고, 교동도 바다와 망향대의 모습위로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환을 그려냈고 노점카페 주인의 노랫소리로 운치를 더했다. 특히, 인천 교동도 앞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파도소리, 갈매기소리, 뱃고동소리에 이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 소리, 머리를 감을 때 물소리, 가위질 소리, 고향을 그리워 부르는 노랫소리, 양복점에서 천을 자르는 가위질소리, 재봉틀을 박는 재봉소리, 망향대에서 고향을 바라볼 때의 바람소리 등 사운드멘터리답게 잘 만들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3. 20.	시청률	0.004

【총 평】

‘아산 민간인 희생 사건’은 4.4 만세운동 거점지로 역사적 현장인 아산시 선장면에서 인민군 부역자들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반공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의 배경과 과정,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했다. 인민군 부역자에 대한 처단을 명목으로 양민학살이 자행됐지만 “이를 주도한 반공세력, 좌익세력 배후에는 군경이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의 증언은 국가 권력에 의한 참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6.25 흑백 영상을 비롯해 학살장면, 유해발굴 당시 참혹한 유골 사진 등을 보여주고 당시 영상물이 없는 방공호에서의 집단 학살 장면을 삽화로 표현해 당시 전쟁이 빚어낸 참상을 단적으로 제시한 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국가 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피해자와 유족에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지원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소개되었다. 또, 아산시가 민간인 희생 추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구성 및 내용】

아산시의 선장 4.4 만세운동이 이뤄진 선장면에서 해방 이후 이념대립이 발생해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탕정면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이 일부 가족을 추방했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탕정면 유지 회의에 참석했다가 총살당했다. 당시 의용소방대에서 근무했던 주민도 부역자로 몰려 희생당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산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민간인 희생사건’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 지역사회의 오랜 반목 그리고 보복적인 남한 당국의 학살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의미 있는 제언을 담아냈다.

아산의 ‘민간인 희생사건’은 해방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전쟁 당시의 혼란과 갈등이라는 역사적 질곡을 대변하는 대표적 케이스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재였다. 또, 부역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보복적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전쟁이라는 이름의 폭력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마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 느껴지는 생생한 증언, 현장을 중심으로 한 취재가 특징이었는데 논리적 방식의 내용 전개보다 더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모두 각기 다른 내용이었지만 가족의 상실,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회한이라는 하나의 느낌으로 잘 버무려졌다.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그동안 은폐되고 왜곡된 민간인 희생사건’을 대상으로 아픈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의 기록물’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가려졌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 그리고 화해’를 모색해본다는 기획의도를 잘 살려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20.	시청률	0.019

【총 평】

‘친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을 다루었고 ‘이슈텔링’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남북 소통을 위한 희망 올림픽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NOW 北’이 ‘친절한 이슈 토크’로, ‘단박톡’이 ‘한반도 이슈텔링’으로 바뀌어 ‘친절한 이슈 토크’에서는 최근 남북관련 핫 이슈가, ‘한반도 이슈텔링’에서는 궁금한 한반도 이슈가 다뤄져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종전 남북중심에서, 시사이슈로의 자연스런 변화가 수용자의 친근감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의미와 주요 쟁점 사안,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 패널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속 시원히 풀어준 기획이 시의적절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남북 단일팀 성사 가능성, 스포츠 교류의 성과를 위해 해야 할 과제 등을 폭 넓게 다룬 점이 유의미했다.

‘친북’에서 다룬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은 한중일 3국과 연쇄회담을 갖는 배경에 대해 미국의 핵심적 전략 방향이 아시아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블링컨과 정의용 그리고 오스틴과 서욱 장관 간에 있었던 2+2 형식의 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평화프로세스가 시동을 건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의미 있었다. 이번 회담 내용과 블링컨 장관의 발언 의도, 북한의 담화 내용 등을 분석해 장관회담의 효과 및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향성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타고 온 전용기’ 등에 주목해, 전시에는 ‘공중에서의 지휘본부가 됨’을 전해 흥미를 끌었다.

‘이슈텔링’은 도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개최 가능성과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스포츠 외교의 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의미 있었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남북, 북일, 북미 간 대화의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었고, 남북단일팀 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외교의 힘을 알려주었다. 과거 스포츠 교류로써 분단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를 제시해 설득력 있었으며, 남북 소통과 꾸준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의미 있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을 토대로 스포츠 교류가 갖는 힘을 강조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었다. 다만, 도쿄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단일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3. 21.	시청률	0.069

【총 평】

‘취업난을 겨냥한 취업문이 열린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내 돈 똑똑하게 쓰는 방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했다. 국민취업제도, 달라진 소비자정책 등 국민적 관심도와 정보의 민감도가 높은 소재를 다뤘고, 키워드 중심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 전달력이 살아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고 특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또,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취업지원정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연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전해주었고, 소비자 보호정책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착한 할인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사업을 전해주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해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69세 성인까지 재산조건에 맞고 취업 경험이 있다면 요건 심사를 거쳐 6개월 동안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6개월의 지원기간이 끝나도 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며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지원해 통장에는 40만원이 입금되므로 3년 만기에는 1440만원을 찾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소비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똑똑한 소비를 독려했다. 징벌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소개하고 국내 최초 적용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녹장리콜, 제작사의 하자 은폐나 축소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6대 판매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에 대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확대 적용한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180억을 증대하여 운영한다. 2021년 미용실, 의류, 독서실, 고시원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확대되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3. 21.	시청률	0.030

【총 평】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대전환, 제조의 혁신-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핵심 주제로 경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환경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변화와 혁신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준비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부터 시작해 앞으로 산업단지가 나아갈 지향점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제시해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 전국 7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인천 남동, 반월 시화, 경북 구미, 대구 성서,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광주 첨단 등이다.

【구성 및 내용】

1964년 구로공단 산업단지 이래로 지금까지 생산, 수출,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었던 산업단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낡고 노후된 현재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통해 스마트 그린 산단 뉴딜 프로젝트를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특히, 공장자동화에 이어 이제는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데이터화를 통해 스마트한 공장 운영의 생산라인이 가동될 소식을 전했다. 산업단지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개념 설명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야 할 산단 입지의 제조업 부활을 다시한번 꿈꾸게 하는 시간이었다. 기존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업단지로 바뀌어갈 것이고 스마트 산업단지 내에서도 저탄소 고효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산업단지로서 젊은 인재가 몰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창출되는 곳으로서의 변신될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선도 산업단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산업-공간-사람이라는 요소를 혁신시키는 스마트 산업단지 개념, 스마트 산업단지에 그린 전략까지 더해진 이유, 젊고 활기찬 변화를 시도한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소개했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의 개념부터 특징점과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해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였다. 경남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서 디지털 데이터화로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 기업을 취재해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한 제조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또, 스마트한 생산 관리뿐 아니라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로 전력 소비를 줄여나가는 현장을 소개했다. 우리 산업중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화 및 스마트 그린 뉴딜 정책은 제조업 기반 산업을 탄탄히 세우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독일 공장지대가 첨단 산업단지로 변한 요인과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에서 배워야할 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주요사업과 스마트 팩토리화, 미쉐린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제조와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알려주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제조업과 ICT가 접목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중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성과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21.	시청률	0.034

【총 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바뀌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1차에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개선방향이 반영되는지, 그 대상과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국민 관심사와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진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정보를 알려준 점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잘못 알려진 ‘농업인 제외’와 재보선 ‘선거용 논란’을 팩트체크로 바로잡아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식당과 노래연습장, 의류판매점 등 사례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노점상과 농민 등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 ‘더 두텁고 폭 넓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사각지대가 좁혀졌다는 내용 등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취약층은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액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이 되는 업종별로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이 매우 좋아보였는데, 단순하게 좋다는 반응만이 아니고 귀담아들을만한 의견도 아울러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3차 때와 달라진 점을 한꺼번에 전하지 않고 업종별로 취재하면서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다. 김치찌개집 사장이 “재난지원금이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는데 공감이 갔다. 재래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이 전한 이야기 중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저금리 장기대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로 정부와 국민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해 정책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3월말 지급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4월 선거를 앞둔 대표행위라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 측 입장이 아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더 강력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라 설득력이 높았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마무리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